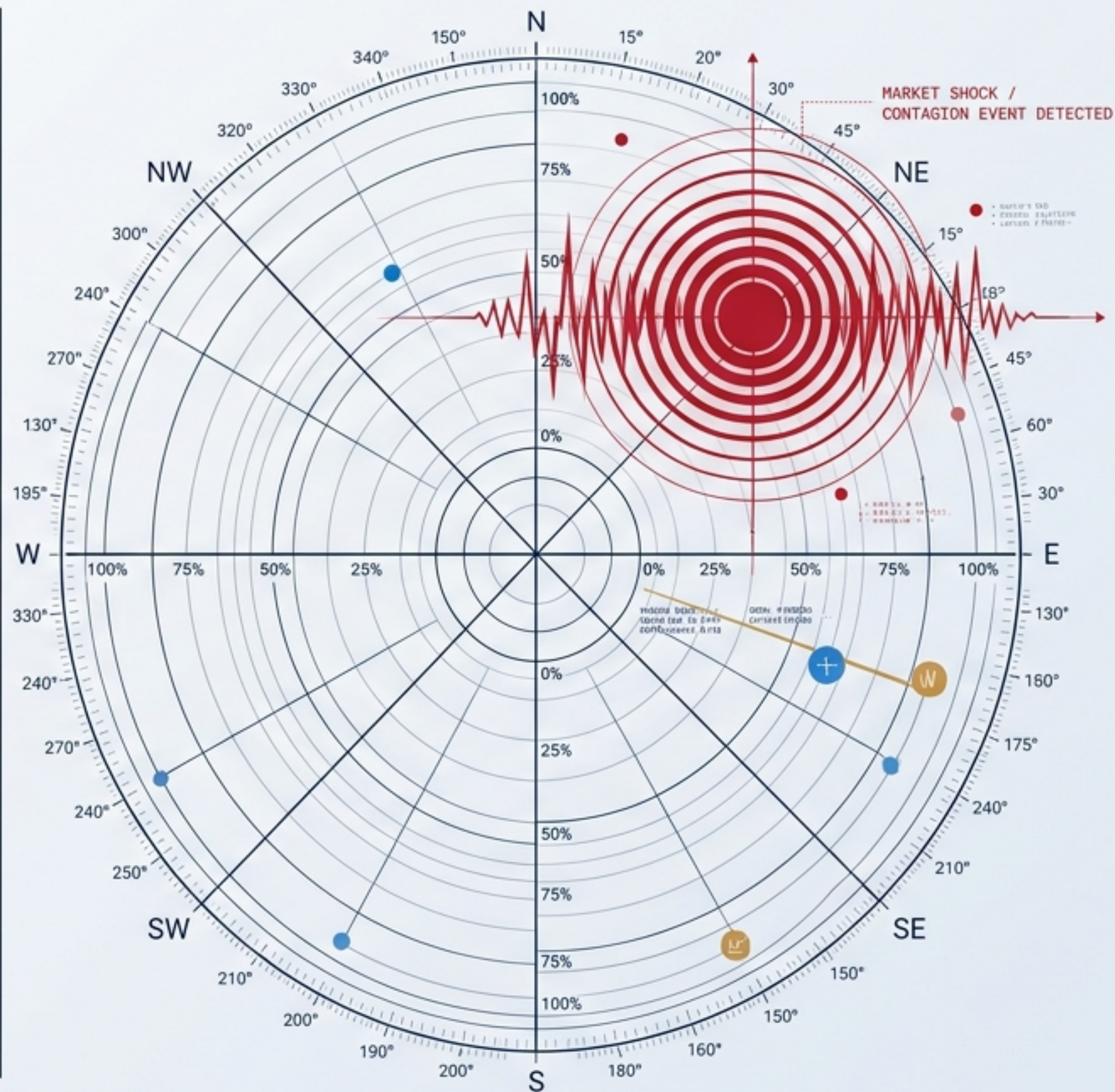


2026.07.08 글로벌 시황 브리핑 및 전략적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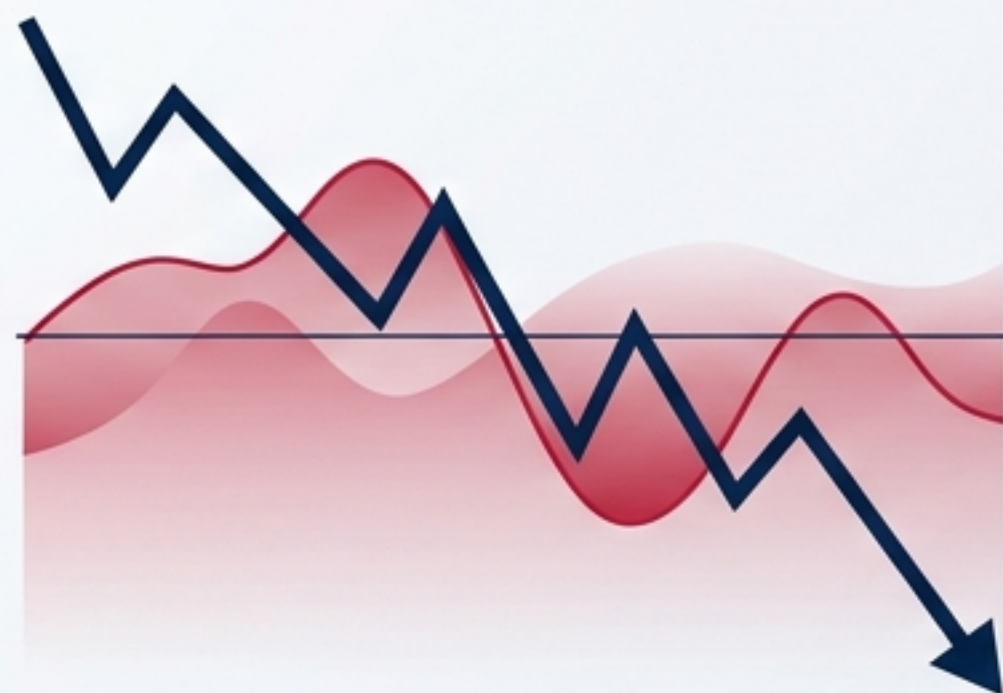
STATUS: **RED** (Market Contagion Detected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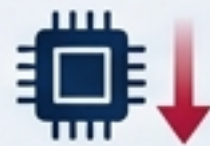
충격 (The Shock)

국내 증시 **5%대 동반 폭락**.
외국인 **300만 주** 대규모
순매도와
'삼전닉스'의 몰락으로 인한
매도 사이드카 발동.



방아쇠 (The Triggers)

미국 AI/반도체 고점
논란(**나스닥 -1.16%**) 및
중동발 지정학적
리스크(**국제유가 급등**)의
동시 다발적 타격.



대이동 (The Fligh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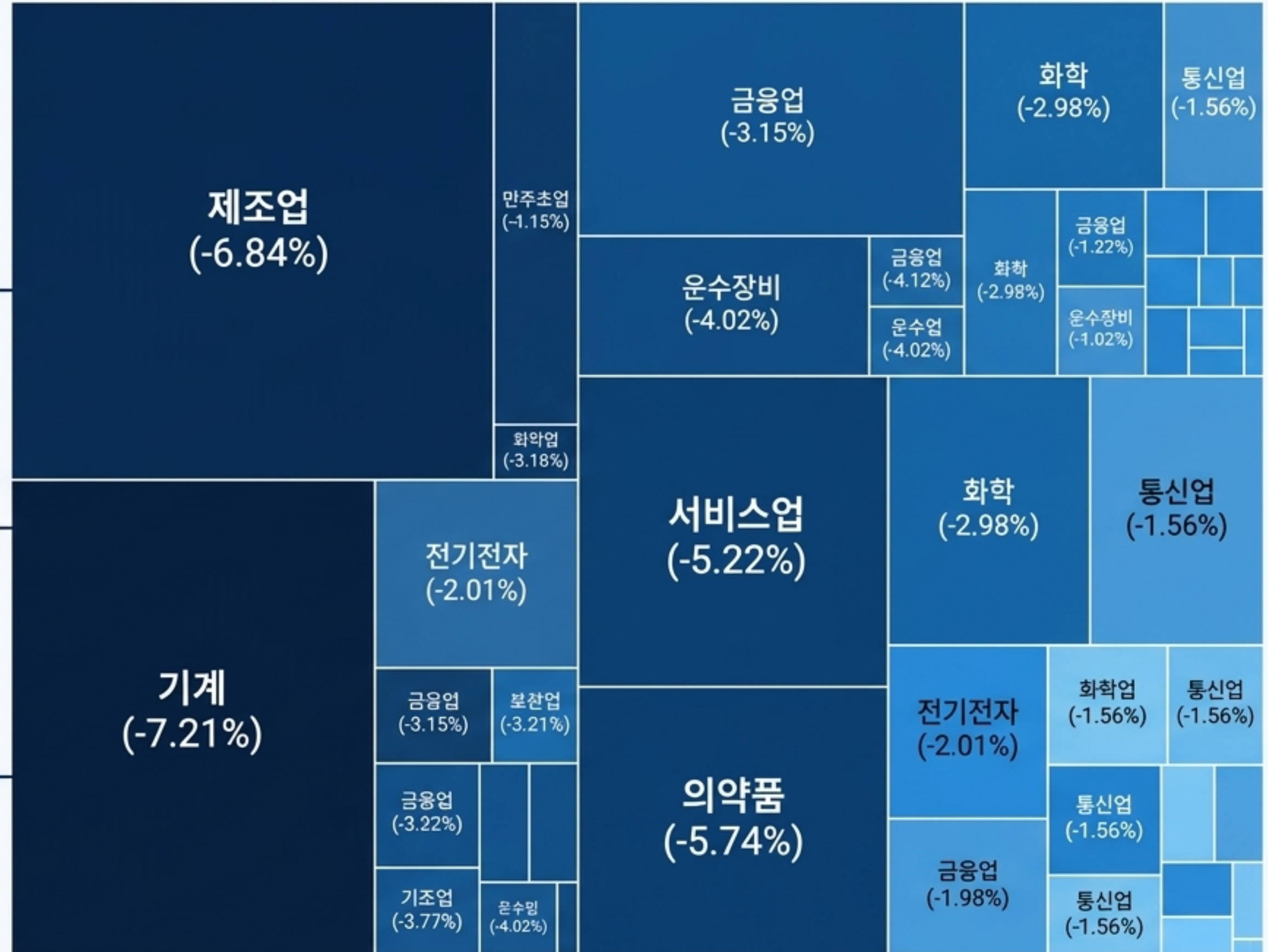
극단적 위험 회피(Risk-Off). 
원/달러 환율 상승,
금·원자재 강세 등 안전자산으로의
급격한 자본 이동.
방어적 포지션 구축 필수.

KOSPI: 7,246.79 (-5.35%)
KOSDAQ: 785.00 (-5.5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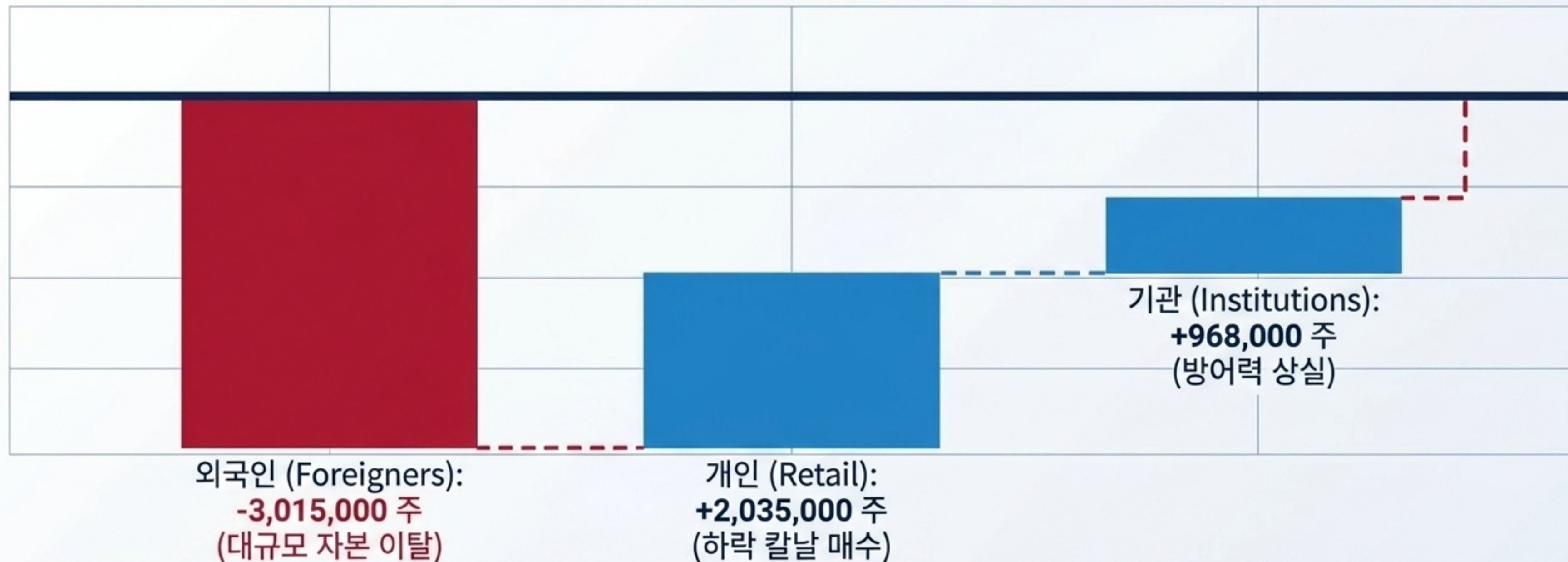
기계 (-7.21%) / 제조업 (-6.84%): 산업 전반의 붕괴를 주도한 최하위 섹터.

서비스업 (-5.22%) / 의약품 (-5.74%): 방어주 성격의 섹터들마저 동반 투매 발생.

전기전자 (-2.01%): 지수 대비 방어한 듯 보이나, 대장주 중심의 엑소더스가 치명타로 작용.



수급의 붕괴: 방파제 잃은 국내 증시



외국인의 기록적인 매도 폭격으로 인해 장중 KOSPI·KOSDAQ 동반 ‘매도 사이드카(Sidecar)’가 잇달아 발동되며 시장 전체가 **패닉 셀링(Panic Selling)** 구간에 진입.

‘삼전닉스’의 붕괴: 코스피 시총 60%의 균열



삼성전자 (Samsung Electronics)

현재가: 277,500원 (-6.25%) | 시가총액: 1622.3조



Risk Point: 전일 -6% 급락에 이은 연속 하락.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**글로벌 시장에서 연쇄 매도 압력 확대.**



SK하이닉스 (SK Hynix)

현재가: 2,076,000원 (-5.68%) | 시가총액: 1479.6조



Risk Point: 나스닥 상장 초읽기에 따른 기대감이 오히려 **‘지분 희석’ 및 ‘국내 증시 자금 이탈(코리아 디스카운트)’** 우려로 변질되며 변동성 증폭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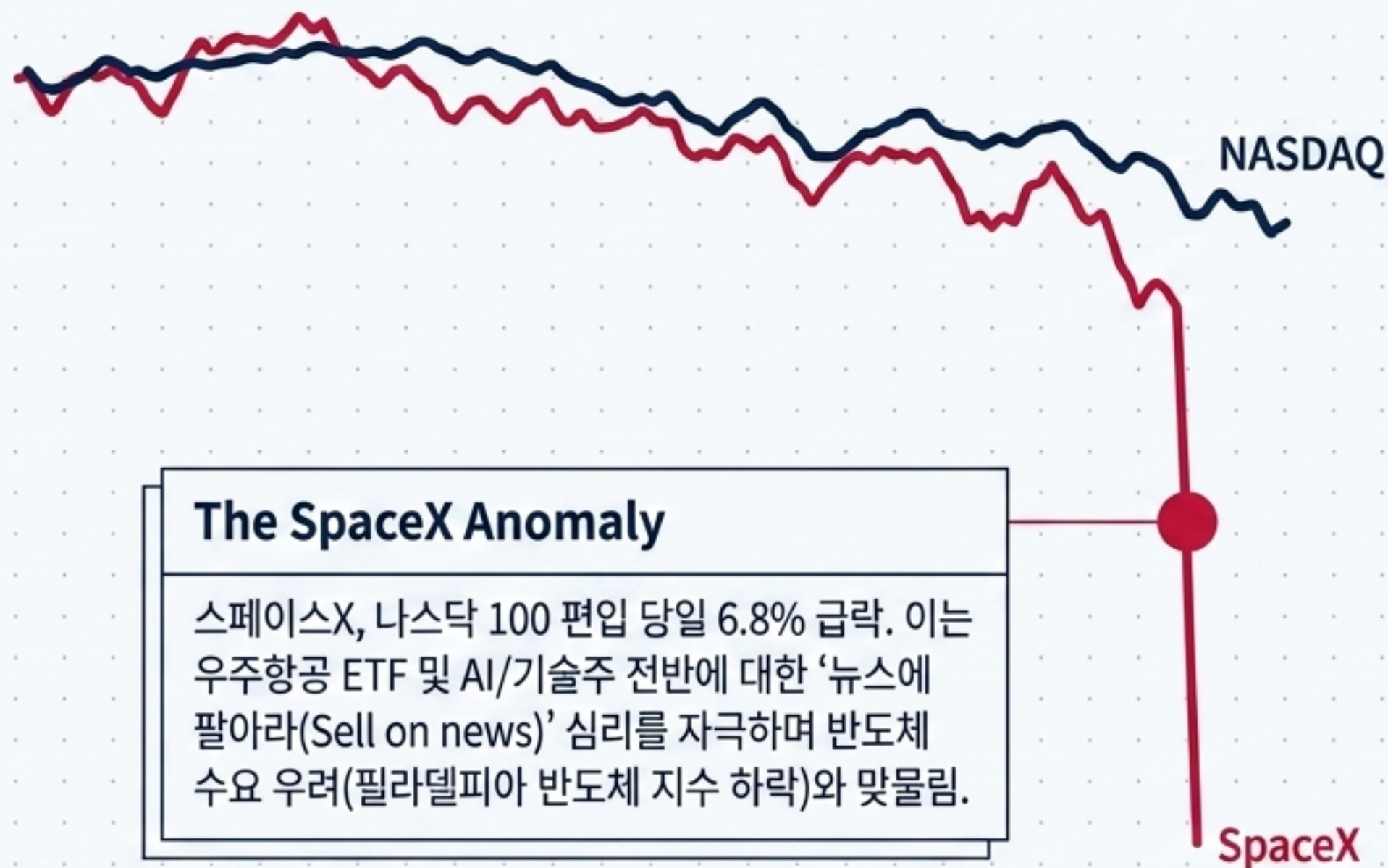
“AI 투자 둔화 시 한국 증시 충격 불가피” (WSJ 경고 현실화)

Trigger 1: 기술주 투심 위축과 고점 논란

NASDAQ: 25,818.69 (-1.16%)

DOW JONES: 52,925.15 (+0.97%)

- 기술주 이탈 자금의 가치주 이동(혼조세)



Trigger 2: 다시 불붙은 화약고와 고유가 쇼크



Step 1. 긴장 재고조: 미·이란 충돌 위기 및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란 공습 재개 보도.



Step 2. 에너지 충격: WTI 원유 \$64.89 (전일 대비 **+\$2.62↑**, 브렌트/WTI 장중 **3% 급등**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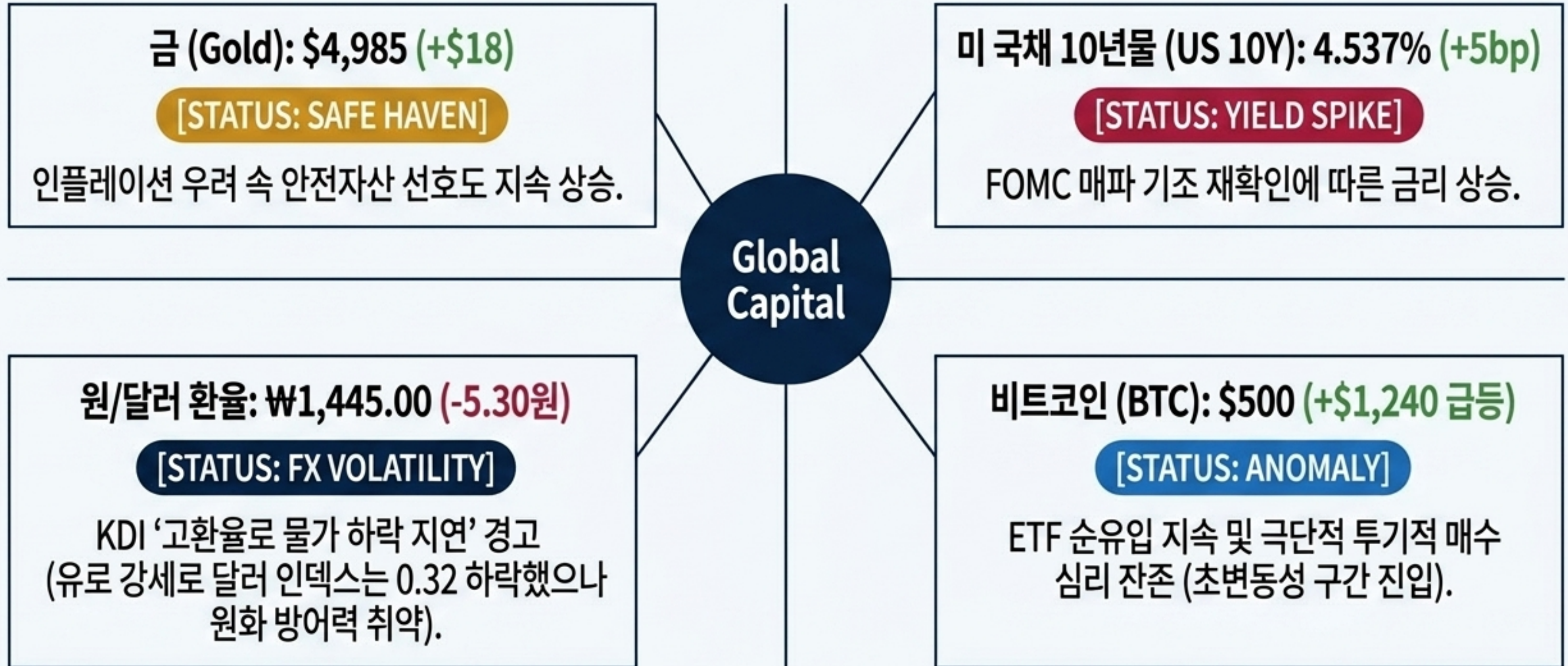
Step 3. 매크로 압박: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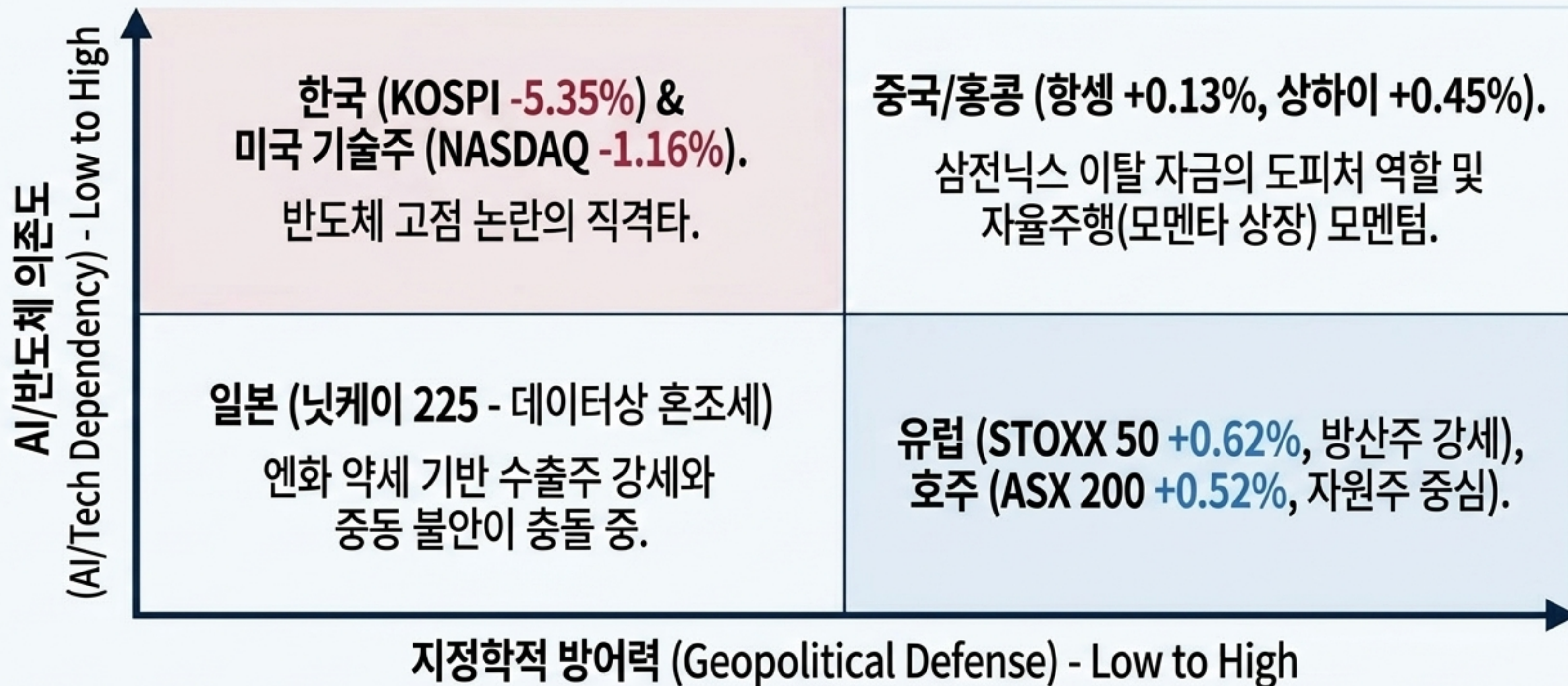
연준(Fed) 매파 기조 강화(국채 10년물 **+5bp 상승**)**↑**

Key Insight: 국제 유가 상승은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, 끈적한 인플레이션(Sticky Inflation) 우려를 자극하며 위험 자산 투심을 급격히 냉각시켰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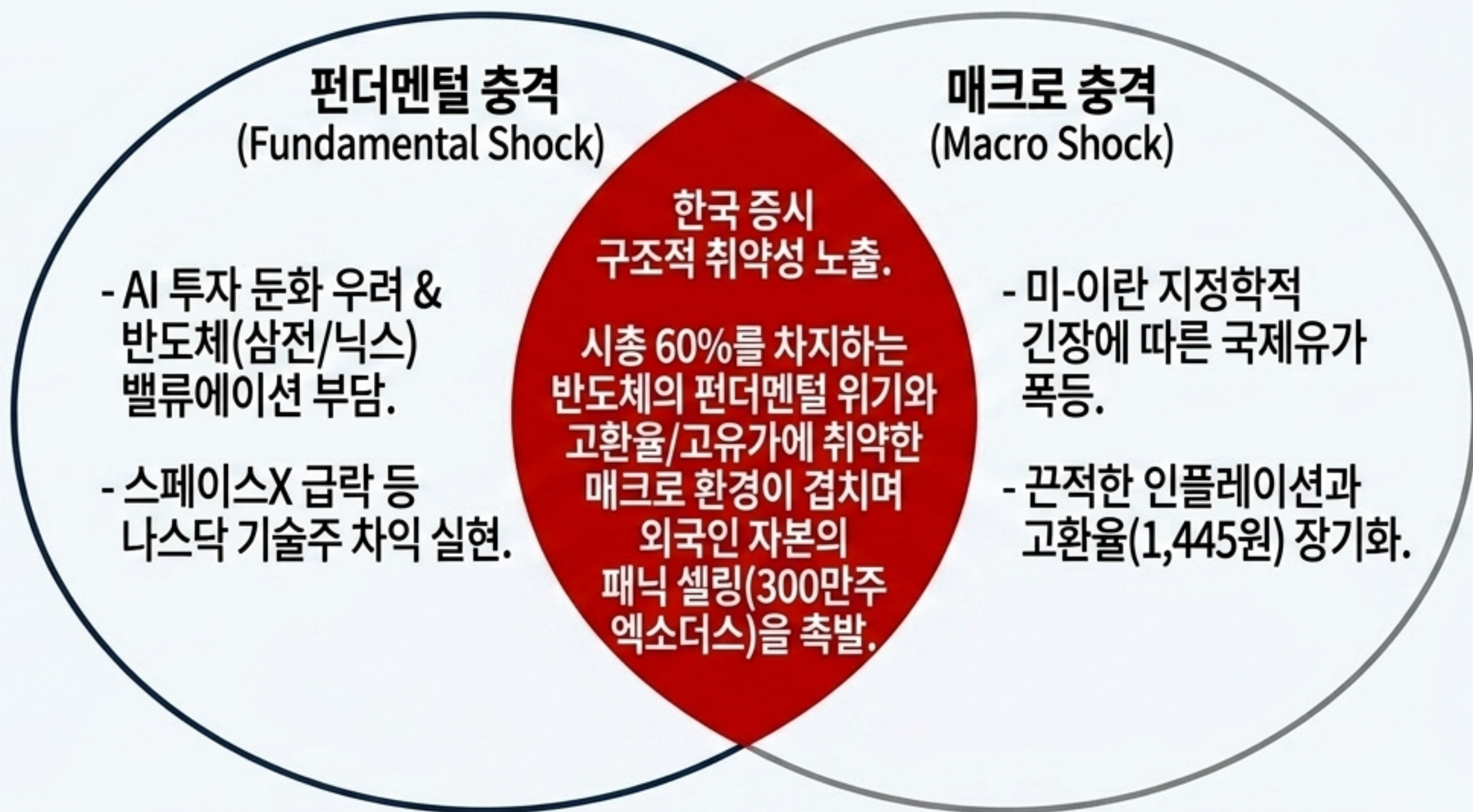
Risk-Off 대시보드: 안전자산으로의 대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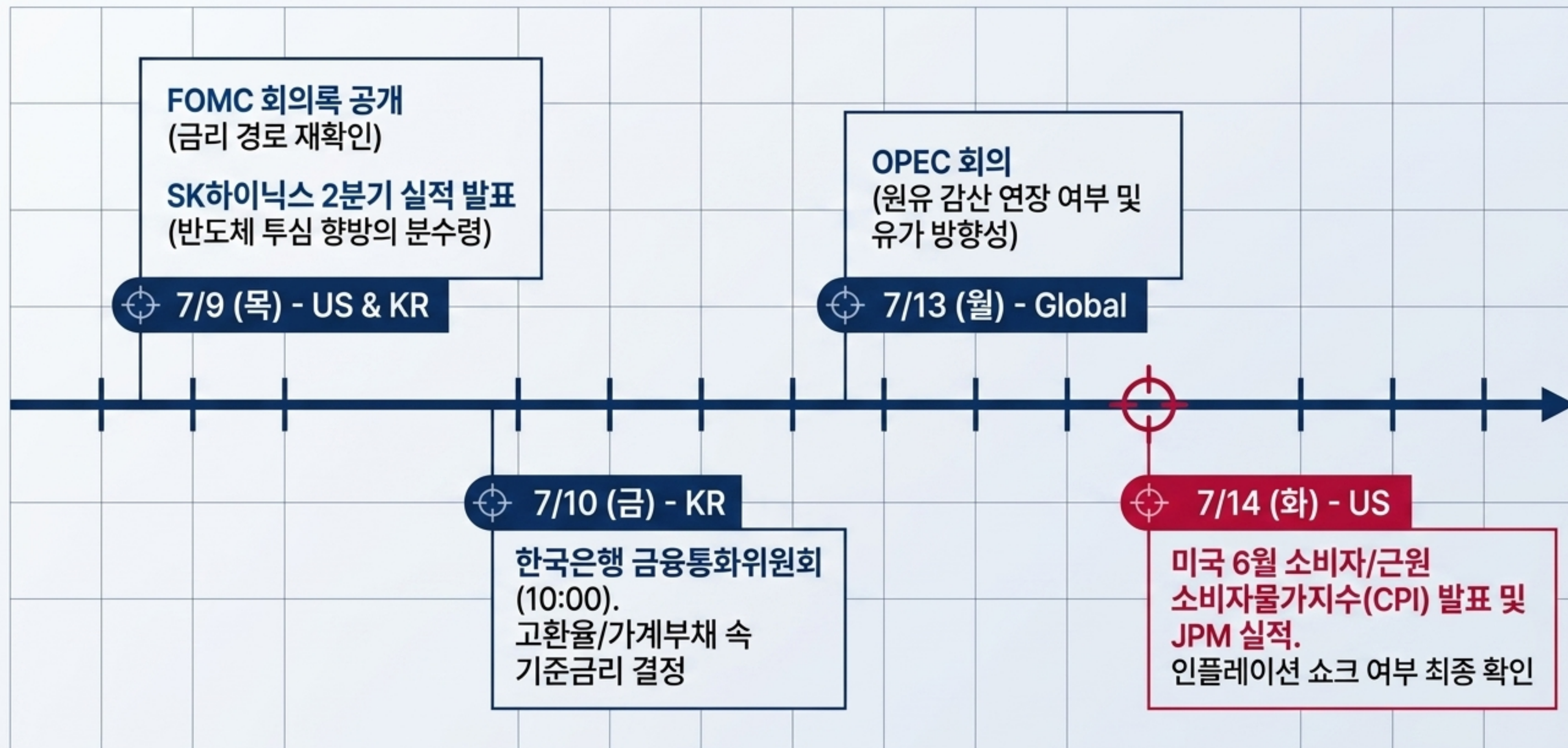
글로벌 디커플링 매트릭스: AI 양극화가 부른 균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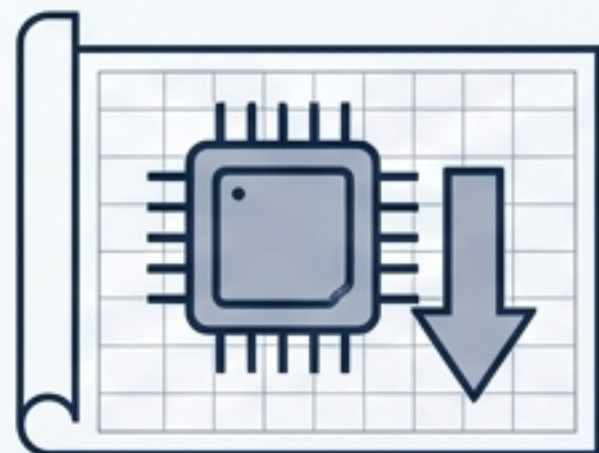
The Synthesis: 이중 충격(Dual-Shock) 프레임워크



전술 레이다: 주간 핵심 트리거 (7/8 ~ 7/15)



Strategic Positioning: 하방 압력 대비 방어선 구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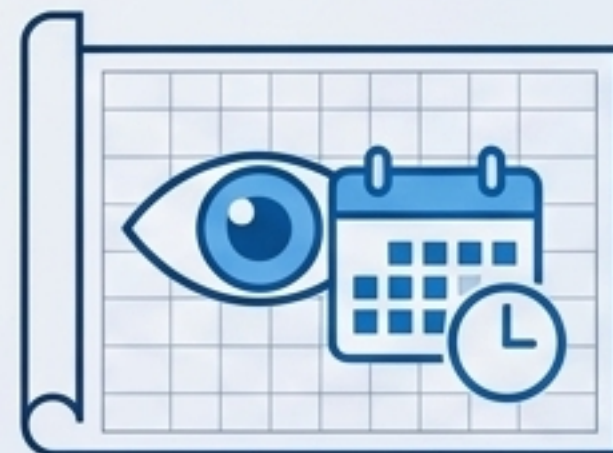
반도체/기술주 비중 축소 (De-risking Tech)

삼전/닉스 등 국내 대형 IT주에 대한 **단기 매도 압력** 지속 가능성.
SK하이닉스 실적(7/9) 및 나스닥-1.2% 하락 여파 주시.
선불린 저가 매수 지양.



안전자산 및 인플레이션 헤지 (FICC Overweight)

원/달러 약세, 금(\$4,985 돌파) 및 원자재 강세 추세.
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FICC 중심의 안전자산 비중 확대 필수.



매크로 이벤트 관망 (Wait & See)

연준(Fed)과 한은(BOK)의 통화정책 회의, 그리고 미국 CPI 발표(7/14)까지 방향성 베팅을 자제하고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보수적 접근 권장.

폭풍 속에서는 항로를 바꾸기보다, **뺏을 내리고** 펀더멘털을 점검해야 합니다.